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 교류 프로그램

No. 28

2022.12.14. ~ 2023.1.10.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해외 북한 연구자들과
국내 북한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펠로십 프로그램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화된 학술 프로그램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특별 강연, 남북 분단 현장 방문 및 문화체험, 세미나, 전담/지도 교수제 등을 통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기존 학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타 기관 및 학회 연계 학술행사 등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학술 활동 및 대외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펠로 최종 연구발표회



일 시: 2022년 12월 21일 (수) 14:00~15:00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참 석 자: 펠로, 사업책임자, 소내 교수진, 연구소 실무진 등 (총 9인)

주요내용: 펠로의 연구에 대해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니시노 준야(Nishino Junya) 펠로는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과 한미일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니시노 준야 펠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확대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조율에 필수적이며, 미중 대립 완화 노력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알림 사항

1. 2022년 12월 펠로 송년 오찬 진행

- 1) 2022년 12월 펠로 송년 오찬이 만정(삼청동)에서 12월 27일 화요일에 진행되었다. 2022년 펠로 및 펠로 십 수료자 등 총 11명이 참석하였으며, 2022년 펠로십 활동 소감 및 향후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2. Fellow별 주요 연구활동 사항

- 1) 12월 1일(목) 니시노 준야(Nishino Junya) 가 국립외교원에서 2022년 국립외교원·한국정치외교사학회 공동으로 주최한 ‘관계정상화의 국제정치와 장기과정으로서의 동북아 냉전 해체: 중일관계정상화, 남북관계, 한중관계정상화’ 학술회의의 ‘탈냉전과 한중국교정상화’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어 12월 5일(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Global NK interview’에서 ‘Intensifying North Korean Threats and Seoul-Tokyo Security Cooperation’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2월 16일(금) 외교부에서 주최한 ‘East Asia Cooperation Forum 2022’의 ‘Enhancing Economic Security in East Asia’ 세션에 참석하였다.
- 2) 모틴 딜런(Motin Dylan) 펠로 수료자가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Next Generation Perspectives on Korean Peninsula Security*(New York: NCAFP, 2022)』에 ‘Stir Up the Hornet’s Nest: How to Exploit the Fric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란 주제로 글을 실었다.